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	배포일자	2023년 3월 22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노인정책과	담당자	• 노인정책팀장 김창현 ☎440-2811 • 담당자 박경숙 ☎440-2813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저소득 어르신에 효드림복지카드 10만 원 지원
 - 4월 3일부터 접수, 만75에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 -
 - 지난 해보다 2만원 늘어난 선불충전 인천e음카드지급 -

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돕기 위해 10만원의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5백여 명의 어르신에게 연 1회 10만 원의 효드림복지카드(인천이음카드)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‘효드림복지카드’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게 인천e음카드(선불충전)로 지급된다. 지난해 보다 2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, 건강, 여가, 위생관리, 전통문화, 이·미용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.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올해 12월 31일 까지다.

기존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 전화신청할 수 있으며, 다만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.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또한 결제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.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효드림복지카드는 2020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의 이·미용비를 작년 보다 늘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했다”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